

연중 제30주일  
제 1 독서 : 출애22, 20-26  
제 2 독서 : 1데살1, 5C-10  
복 음 : 마태22, 34-40

# 순정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마태 22, 37, 39).

## 강론

## 소리

### “세상살이”

정 양 현 신부 / 호성동천주교회

세상을 대충대충, 그저 적당히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타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세상살이와 신앙생활을 가름할 수 없듯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똑같이 중요하다.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듯이 세상살이도 그렇게 해야 옳을 것이다. 삶은 사랑이다. 충실한 삶은 하느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은 적당히 할 수 없다. 사력을 다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말을 엄청 자주 듣는다. 거기에 갖가지 화려한 수식어가 총동원되기도 한다. 피정 때 어느 강사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생각난다. “사랑은 ‘참아 하지 않는 것!’ ‘참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무슨 소리인가! 또 말장난인가! ‘참아 하지 않고, 참아 하라’는 이야기다. 하든 하지 않든 행하라는 것이다. 타성에 굳어진 우리 몸과 마음을 하느님을 향해 움직이라는 말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내려왔다. 참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똑같은 조건, 같은 자리, 평등한 위치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분은 같아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좀더 나은 조건이 되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엄청 높으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신분을 취하신 하느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께로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몸을 움직여야 한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이치와 똑같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과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살이다.

### “옳소! 와 아니오!”

무릇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다. 좋은 만큼은 나쁘고, 나쁜 만큼은 좋은 셈이다. 영리하면 영리한 대로 나쁜 점이 있고, 명청하면 명청한 대로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 가치나 진리의 변증법적 논리가 성립되기도 하지만, 어설피게 까다로운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 같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이것만이 제일이고 이것만이 옳다는 식의, 이른바 절대적 가치·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지성이 이기주의나 패배주의에 영합될 때, 이도 저도 옳다는 시각(兩是論)이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라는 시각(兩非論)으로 말제주를 굴린다. 그래서 이들은 흑백 논리를 누구보다도 싫어하며, ‘옳소!’ 하거나 ‘아니오!’ 하고 불끈대는 친구를 단세포적 명칭이라고 비판다. 충분히 일리는 있다. 이 지상의 ‘광기’와 ‘저돌’을 생각할 때, 저 네로나 히틀러를 상기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양시론적 혹은 양비론적 부류치고 빼대있게, 의롭게 사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다. 비록 점잖게 큰소리치는 시늉이지만, 바람타지 않고 약게 살아간다. 이런 부류의 생각으로는 ‘구원’이니 ‘영생’이니 하는 신심도 한갓 어리석은 고정관념일 뿐이고, 십자가의 고행 정신도 따분한 위선에 가깝다. 이들의 무슨 ‘이상’이라는 것은 속 편하게 살려는 실리적 이기심을 그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실속꾼들이다.

어지러운 시대, 잘못 풀린 세상일수록 분명히 아니오! 하거나, 크게 옳소! 하는 (兩斷論的?) ‘신앙 지성’이 더욱 아쉬워진다 하겠다. [국]

### 순정이 산책



## “성인 공경의 의미”

성인(聖人)이란 단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성인’은 생존시에 영웅적인 덕행으로써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 교회가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한 사람들, 또는 ‘성인록’에 올라 장엄한 선언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된 분들을 말한다. 교회가 어떤 이의 성성(聖性)을 공인하는 것은 그분의 삶으로 미루어 그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그분의 생존시의 덕행이나 순교가 참신앙인의 모델이요 구원의 길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전구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공표할 때는 특별한 날을 정하고(보통 그의 천상 탄일인 사망한 날짜로 한다) 전례력에 기입하여 세계 모든 교회가 장엄하게 그를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한다. 지난 1984년 한국 천주교 선교 200주년 기념식장에서 공표된 한국 교회의 순교자 ‘성안드레아 김 대건과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들의 축일은 9월 20일이다. 이날은 세계의 모든 교회가 장한 우리 순교 선조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한다. 그러나 이 전례력에 빠져 있는 성인들이 있는데

매년 11월 1일, 위령 성월의 첫날을 모든 성인의 날로 정하고, 모든 성인들과 함께 이들을 특별히 기억한다. 이 성인 공경은 오랜 교회의 관습으로 우리 교회 영성의 큰 몫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한 분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를 해치는 행위로 심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트리엔트 공의회는 그 위험성을 인정하고 남용이나 지나침이 없도록 당부하면서(Deuw 984~988) 이의 유익함을 계속 고수한다. 사실 성서에는 이 성인 공경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을 존경하고 이들에게 전구를 청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2세기 중엽이다(폴리카르포의 순교록 XV, II, 3).

이같은 성인 공경에 있어서의 교회의 신중함과 이 성인 공경에 관한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성인 공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견지함에 있어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가르쳐준다. 성인 공경은 그들의 삶을 본받아 나의 삶으로 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칫 기복신앙의 매체로 전락되어 성인들의 영광된 삶의 빛을 흐리게 해서는 안되겠다.

### 교회 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시장(慈善市場 : bazaar) 안내

1980년 132만이었던 천주교 신자가 1989년 말 현재 261만의 신자로 늘어났다. 190여 년을 거쳐 이룩한 성장을 단 10년 만에 이룩한 것이다. 우리 전주교구의 성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1980년 말 65,134명의 신자수가 작년 말 현재 103,227명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급격한 신자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교회 시설물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른 막대한 경비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써 해결해야 마땅하겠으나 아직은 역부족임을 체험한다. 이에 각종 모금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는 바자(bazaar)이다. 헌금하는 마음으로 꼭 한번씩 둘러 봐야겠다.

① 치명자선 성지개발을 위한 알뜰 바자 :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주 중앙 성당에서 열리고 있다. 1987년 3월에 착공, 아직도 담보상태에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투갈다와 요한의 아름다운 삶을 반방에 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② 송학동(이리) 성당 신축 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 나눔 큰 잔치 : 11월2일에서 5일까지 창인동 성당 유치원 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리 송학동 본당은 1988년 1월 창인동 성당으로부터 분가한 신설 본당. 신설 초기부터 대지는 물론 심지어 임시 성당 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이리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리 지역 신자는 물론 전교구 신도들의 도움이 참으로 필요한 본당이다. 프라이드 승용차 등 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마련하고 경품권을 판매하는데 예상 외의 난관에 부딪쳐 고민중에 있다. 각 성당 사무실에 마련되어 있으니 1장씩만이라도 사준다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③ 둔물동(군산) 성당 수녀원 및 성심 유치원 신축 바자 : 지난 26일부터 시작하여 28일까지 계속된다. 39종의 생활 필수품과 24종의 음식 코너, 기증품 코너를 마련하였으며 행운권도 발매한다. 군산의 모(母) 본당으로 낡을 대로 낡은 수녀원과 유치원을 신축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동참하여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p>주단·침구·훈수 전문 <b>부인주단</b> 김한중(오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 84-7294</p>	<p>신부 부케 전문점 <b>진선미꽃집</b> 이마리아 범디도 ☎ 84-2628</p>	<p>해외여행 (성지순례·신혼여행) <b>고려관광</b> 이종길(오한) ☎ 87-9797 (기림로 범무청 사거리)</p>	<p><b>태화신발백화점</b> 신사화·수녀화 아동화·특수화 / 총판매장(공정직영) 김문식(베드로) ☎ 82-3118 풍남문, 종전, 송악로 사거리</p>
--	--	---	--

잡 관!

성직자들만의 영명 축일?

어느 날 어떤 성직자의 영명 축일 축하 행사장에 참여한 적이 있다. 많은 교우들이 정성껏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부르며 축하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축하객 중에 그 성직자와 똑같은 본명을 가진 평신도가 그저 말없이 끼어 있는 것이었다. 순간 '성직자들만의 영명 축일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그건 아닌데...' 하는 쓸쓸한 생각에 영 기분이 개운치가 않았다. '영명을 축하한다.' - 과연 무슨 의미의 인사말인가? 남들이 그렇게 하니 나도 덩달아 하는 그런 인사말에 불과한가? 아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세례받은 우리의 모습을 상기하고, 내가 평생 본받아 따르기로 하여 정한 성인의 삶과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나의 삶을 비교 묵상하는데 영명 축일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본명을 성대히 축하함의 속 뜻 역시 그 성직자가 택한 그 성인처럼 살아달라는 하나의 기도이며 부탁일 것이다.

베드로, 바오로, 토마, 안젤라 등 많은 서구식 이름으로 우리는 불리워지고 있다. 또 1984년 이후부터는 정하상 바오로, 정원지 베드로, 정문로 바르톨로메오 등 한국 이름의 본명들도 서서히 귀에 익어간다. 성인의 이름을 갖다니,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이 어찌 성직자들만의 신나는 일일까? 서로의 영명 축일을 기억했다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날로 만들어준다면 서로가 가는 길에 큰 힘이 되리라.

요심이 (899) 김병오



교 구 소 식

1. 사무감사: 31일(수) 오전-고창, 연지동. 오후-효자, 호성. 1일(목) 오전-시기동, 신태인.
  2. 재무 평의회: 11월 2일(금) 오후2시 교구청.
  3. 꾸르실로 총회: 11월 3일-4일 천호 피정의 집(3시 가톨릭센터 출발) 대상-각 본당 간사, 교육봉사자, 추천자.
  4. 레지오 교육: 10월 30일 중앙 성당. 9시50분까지 등록 완료.
  5. 파티마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11월 1일(목) 덕진 성당 10시-16시 미사도구, 묵주, 도시락 지참.
  6. 테클라 성소모임: 11월 4일 오후2시 성마오로 서원2층 (0652)252-3398.
  7. 살레시오수녀회 성소모임: 11월 4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8. 사랑의 씨앗수녀회 성소모임: 11월 4일 오후2시 동산동 성당 수녀원 (0652)77-4212.
  9. 성모의 기사회: 11월3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 ※ 축! 영명: 28일(성시몬과 유다) 박종신, 한봉섭, 서정현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전북일보 천주교 고정란(7면) '성당의 종소리' 안내: 29일(월)-교회는 왜 현실에 참여하는가? (정인섭 선생), 31일(수)-세월이 가르치는 것(최용준 신부), 11월 3일(토)-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홍보국).

사무장 채용

남원 도봉동 성당에서 같이 일하실 사무장을 찾습니다.  
 •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 1통  
 2. 본당신부님 추천서  
 • 남·녀: 구별 없음  
 ※ 연락처 (0671) 31-0091  
 남원 도봉동 천주교회

샘물



좋은 生水는 직접 시음을 해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주 85-4205. 군산 64-4481  
 이리 52-5595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가를 정취를 교양인답게—

단풍이 짙게 물드는 시기, 산을 많이 찾게 되는 계절입니다.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병, 휴지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또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바위, 토양 등을 훼손시키지 말고 아름다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즐기는 교양인이 되도록 합시다.

웨딩 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최영자(헬레나)

☎ 6-6951

동서관동로 신탁은행 앞

송학동 성전전립 기금 마련 사랑 나눔 큰 잔치

축복권

2천원으로 축복과 승용차를...

- 축복상 1명: 승용차 (프라이드)  
 1 등 1명: 피아노  
 2 등 1명: 오디오 셋트  
 3 등 1명: 냉장고  
 기타 300여명 기념상품  
 ※추첨일: 1990. 11. 5(월) 오후 3시  
 판매처: 각 본당 사무실

은하체육관(태권도)

주소: 서원산동 1가 201번지  
 효자주공 APT 3단지 옆

전화: 83-6482

관장: 김기남(바오로)  
 이난영(헬레나)

라인인테리어

실내·외 장식 디자인

구원(한)  
 구만석(토마스)  
 구총주(노렌조)

☎ (0653) 856-1777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 노송동

-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송 남
- 모든성인의 날: 11월1일 새벽5시30분, 저녁7시30분 미사(1일~8일까지 표지방문하여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전대사 받을 수 있음).
  - 위령의 날: 11월2일 미사-새벽5시30분, 6시, 저녁7시30분 \* 합동위령미사 접수: 2일, 교회묘지에서 10시30분(미사후 애병회 단합대회 있음) -본당에서 버스10시 출발하니 시간엄수 바람.
  - 가정방문: 30일-후 중노2가16만, 중노2가3만 31일-전: 중노1가5만, 중노2가4만, 후: 중노1가6만, 중노2가5만 11월1일-후: 중노2가15만, 중노2가6만.
  - 남전주지구 초등부교리교사연합회: 30일, 후6시, 노송성당 교리실.
  - 모임: 성시간-1일 후7시30분 \* 반희장 모임-1일, 전 10시30분 \* 사목회 분과모임: 2일, 후8시.
  - 탈삼미사: 30일, 후8시 이순자(유리안나)씨 택.

□ 지난주 봉헌금: 971,610원 □ 교무금: 648,000원

## \* 복사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 회장단회: 오늘 저녁미사 후.
- 제대회: 1일 오전10:30.
- 성체강복: 1일 저녁미사 후. 4. 어머니 성가대 월례회: 2일 오전11:30분.
- 죄인의 의탁Pr 주회 500차 기념 일일찾집: 11월18일.
- 가정방문: 30일 교사동 2만, 1일 다가동 1만, 2일 다가동 2만.
- 금요일 미사: 오전10시로 변경.
- 사목회: 다음주. 9. 11월2일 위령의 날 미사: 오전10시.
- 연도대회: 11월14일 저녁미사 후(7시30분).

금주 전례: 황만금 ① 정승훈 ② 유경희  
봉헌-정승훈 씨 부부

차주 전례: 독서 ① 안철조 ② 유경순  
봉헌-안철조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24,700원 □ 교무금: 852,500원

##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 제대회: 공식미사 후.
- 올드레아: 31일 저녁 양주태(로렌조)씨 택.
-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다음주).
- 사목회: 3일 저녁미사 후.
- 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성경읽기: 예레11장~20장.
- 청년회 등반대회: 공식미사 후, 만덕산.
- 금주 전례: 해설-이승복 독서-김봉길, 김순이  
봉헌-김한철, 유준근 씨 부부
-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이옥동, 최영숙  
봉헌-김대권, 양재철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87,300원 □ 교무금: 163,000원  
□ 2차: 93,270원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 오늘은 연중제30주일 I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 회의: ① 푸리아-오늘 오후2시 ② 사목회-다음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③ 자모회-다음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
- 알림: ① 가정방문-10월31일(수)21:22만(반장님들은 아침9시까지) ② 교무금-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장이오니 납부치 않은 분들께서는 연달대로 납부해 주세요. 이미 완납하신분도 있는가 하면 아직 신청도 하지 않은 신자분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③ 혼인강좌-결혼을 앞둔 신자들은 교구청에서 실시하는 혼인강좌를 받듯이 받으셔야 합니다(매월 마지막주일 오전9시센터에서).

\* 성당 환경미화에 봉사해 주신 오만리(요한), 김현필(베드로)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558,160원 □ 교무금: 758,000원

##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 한

- 국화 판매 합니다: 5,000원.
- 사목회·요셉회·시라회·막달레나회: 공식미사 후.
- 사생대회 및 소풍: 11월 3일.
- 꽃봉헌회 모임: 11월 2째 금요일.
- 신축현금 수입금: 21,874,000원 입금: 15,503,000원.

□ 지난주 봉헌금: 341,010원 □ 교무금: 480,000원

##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출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 성전보수현금 바람. 1. 올드레아: 공식미사 후.  
2. 성마리아 푸리아: 오늘 오후2시. 3. 레지오 단원교육(레지오) 10월30일 10시부터 파견미사 4시30분(저녁미사 없음).
- 가정방문: 30·31일-완산동1,2,3만 11월1~2일-동교동1,2만.
- 성체강복 및 성체조배: 11월1일 10시. 6. 병자영성체: 11월 7. 나라를 위한 기도: 매주 수요일 저녁7시 미사.
- 젊은이 성서모임: 수요일-여정, 금요일-해방공동체(저녁미사 후). 9. 돈보스코회 피정: 11월3일.
- 금주보수비현금액: 417,000원 \* 현재모금총액: 165,200,220원
- 금주보수비신입액: 440,000원 \* 현재신입총액: 236,500,618원 □ 지난주 봉헌금: 1,309,390원

##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병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환

- \* 축! 하나님의 자녀가되신 형제·자매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예비자를 1인 1명씩 인도합니다. 인도봉헌서-사무실 \* 차기 사목회장추천: 대상-10명이상추천권자, 마감-11월 11일까지(발표-25일) \* 투표는 비밀투표임. 1. 올드레아 공식미사 후. 2. 푸리아: 오늘 오후3시. 3. 가정방문 일정: 3일(화) 오전-8만, 오후-7만, 31일(수) 오후-6다만, 1일(목) 오전-9만, 오후-12만, (방문시간-오전9시30분, 오후2시) 4. 사목회: 3일(토) 오후7시30분. 5. 본당 등산대회: 4일(일) 공식미사 후(신청자 본당집결) 장소-모악산. 6. 금주 전례: 문치구 복사-김광탁, 강수중 봉헌-이봉원 부부 차주 전례: 김광탁 복사-박종규, 강장근 봉헌-심상기 심상기 부부 □ 본당내 우리의 기정. 교무금은 미루지 말고 봉헌 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432,080원 □ 교무금: 669,000원  
□ 전교주일: 155,990원

##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근

- 야의미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협조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자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가정방문에 빠진 가정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십시오.
- 예비자 교리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8시(예비자와 함께 신자·리본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침소봉사: 금주-은총의 중개자Pr. 다음주-동정마리아Pr.
- 금주 전례: 해설-한병갑 독서-봉헌-한정훈 부부 차주 전례: 해설-최정순 독서-봉헌-안중기 부부
- \* 주일미사 참여와 시단에 늦지 맙시다.

##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김태환  
사목회장 황수석

- 절두산·새남터 성지 순례: 11.4(일) 집결시간-06시 출발 장소·시간-목화 아파트 앞 06:30분 준비를-점심, 미사준비물. \* 시간엄수. 2. 11월4일 본당 미사 안내: 06시, 11시 미사만 있습니다(김명일 신부 주례). 3. 모임안내: 푸리아-수 10시(교류관), 안나회-11월 둘째주 11시 미사 후(11월만). 4. 견진후: 호 오후7시30(교육관)-성인반, 토 오후5시 미사 후-중고생반. 5. 부활반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일-09:30, 금-10:40, 수-오후 7시30(사무실 옆). 6. 성당침소 봉사 구역: 효자 2단지 거성국민 APT. 7. 전교주일을 위한 2차현금: 526,570원. 본당신자 교무금 신입총액: 93,641,000원 납입총액: 11,265,500원 55% \* 매월 마지막 주는 교무금 월납 주일입니다. 협조 바람.

##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흥두

- 나눔의 주일입니다.
- 반석회·요셉회: 공식미사 후. 3. 돌담회: 오후6:00.
- 성모회, 단합대회: 29(일) 오전9시 출발.
- 안나회, 단합대회: 11월5(월) 오전9시출발. 6. 여성분과회: 2(금) 오후8시.
- 가정방문: 신부님-30일 남양효자, 31일 신봉 수녀님-30일 독재, 31일 태백, 11월1일 신봉, 2일 거성.
- 중·고생 정기총회: 11월4일 학생미사 후. 차주 모임: 사목회, 푸리아. 신축현금: 벽돌 한장이라도 정성껏 봉헌합니다. 신입총액: 40,050,000원 신축현금 봉헌: 58,570,189원 금주 전례: 해설-박명래 독서 ① 박소옥 ② 양갑순 기도 ① 전형섭 ② 이영혜 차주 전례: 해설-강진상 독서 ① 김성택 ② 양미자 기도-① 문병석 ② 구문순 □ 2차현금: 309,780원 □ 지난주 봉헌금: 614,550원 □ 교무금: 1,679,000원

\*치명자산 성지개발을 위한 알뜰바자회: (오늘까지) 10월 27일-28일 전주중앙성당·생필품판매·음식코너